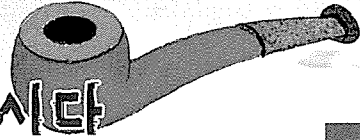


올해엔 금연합시다



이광호(KBS 해설위원)

금연열풍과 함께 당국의 강력한 흡연규제로 지난해 흡연인구가 크게 떨어졌다. 최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흡연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56.7%로 2002년의 60.5%에 비해 3.8%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에서 매년 1~1.5% 포인트 정도 흡연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비추어 우리의 경우 급속한 흡연율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흡연율이 71.1%에서 66.2%로 4.9% 포인트 정도 감소했고, 3~40대는 각각 5.1% 포인트 줄어 들었다. 20세 이상 여성 흡연율도 6%에서 3.5%로 낮아졌다. 지난해 추정된 우리나라 20세 이상 흡연인구는 천26만명으로 지난 2000년 흡연인구 약 천300만명에 비하면 274만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남성 흡연율 OECD 국가 중 최고

이처럼 우리의 흡연율이 떨어진 것은 2002년부터 금연열풍이 사회전반에 걸쳐 거세게 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KBS에서 흡연의 폐해를 지적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방송하는 등 금연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여기에도 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코미디언 이주일씨의 금연 호소가 많은

흡연자들을 금연대열에 서게하는데 크게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4월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발효돼 금연구역과 금연시설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 조치로 전국에 8만 여 곳이던 금연구역은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을 합쳐 33만 여 곳으로 늘어났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3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하고 금연시설 표시나 구역지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있어 담배 피우는 많은 사람들이 금연하는 계기가 됐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의 흡연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흡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남성은 31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영국 등 각국 흡연규제 강화

프랑스에서는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담뱃값을 15% 올리고 학교에서는 금연교육과 함께 니코틴 대체품을 나눠주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의회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영국에서는 작년 3월부터 어떤 형태의 담배광고도 모두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통한 광고도 금지되고 있다.

노르웨이는 오는 6월부터 식당과 술집을 포함해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노르웨이는 이와함께 청소년 흡연을 5년 내에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아래 청소년 대상 금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내년부터 모든 방송과 인쇄매체 등에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등 담배와의 전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싱가포르 흡연을 세계 최저

싱가포르는 흡연을 14%로 세계 최저 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최근 청소년 흡연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청소년 흡연자에 대해 의무적인 금연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정에서 최고 30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청소년 흡연규제 방안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식당, 극장, 지하철 등 대부분 시설에서 흡연을 금하고 있다.

홍콩 특구 정부는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홍콩 정부는 앞으로 모든 식당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담배 걸면에 강력한 경고문을 부착하는 내용의 법률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3억 5천만명의 흡연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당국은 오는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관련법률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담배는 발암물질 60여 종 함유

담배는 60여 종의 발암 물질과 4천여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들어있어 마리화나보다 중독성이 강한 독극물로 분류되고 있다. 담배는 폐는 물론이고 구강과 혀, 식도 등 담배연기가 지나가는 모든 부위에 직접적으로 암을 일으키고 있다. 발암물질 덩어리인 니코틴은 피에 녹아 온몸을 돌아다니므로 모든 장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 발생 위험이 무려 6.5배나 높고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나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새로 발생하는 암환자 10만명의 20%, 암으로 인한 사망자 6만명의 30%가 담배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 한해 500만명

전세계에서 담배로 인해 숨지는 사람은 연평균 5백만명에 이를 정도로 담배는 인간을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대량으로 파괴하는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이다. 최근 사회전반에 불어닥친 금연열풍으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줄고는 있지만 선진국 대부분의 흡연율이 30%이내인 것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으로 흡연율을 30% 이내로 내려 암 발생 등을 줄여야 한다.

흡연을 세계 제일의 나라라는 오명을 씻고 담배의 해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마음을 독하게 먹고 금연하는 방법 뿐이다. 애연가들이여! 갑신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자신의 건강과 가족 그리고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읍시다. **Z**